

KGM, 中 수출 1위 체리차와 전략동맹… 7500만弗 투자 유치

중형 SUV 공동개발 속도 높여
두 번째 신차 프로젝트도 추진
자율주행·반도체로 협력 확장
해외 생산·판매망 공동 활용
국내 전기차 출시 가능성 주목

KG모빌리티(KGM)가 중국 승용차 수출 1위 기업인 체리자동차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75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사는 기존 플랫폼·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공동개발 협력을 넘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봇, 반도체 등 미래 신사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KGM은 체리차와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 2025년 중·대형 SUV 공동 개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양사는 KGM의 상품기획, 디자인, 차량 개발 노하우와 체리자동차의



8월 2일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KGM-체리자동차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계약 체결식에서 KGM 박재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GM

친환경 파워트레인 및 글로벌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신차 개발에 속도를 낸다. 첫 공동개발 성과인 프로젝트 'SE-10'은 렉스턴의 헤리티지를 잇는 중형 SUV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2.0ℓ 기술린 모델로 구성돼 2027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양사는 프로젝트 'SE10'에 이어 두 번째 공

동개발 프로젝트 추진에도 합의했다.

다양한 지역의 법규와 안전기준, 고객 요구사항을 상품기획 단계부터 반영해 한국과 중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차종을 개발할 방침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차종과 사양, 생산 및 판매지역, 역할 분담 등을 단

계적으로 합의해 글로벌 상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자동차 이외 영역인 로봇과 반도체 사업에서도 공동 연구·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투자와 개발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양사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 생산 및 사업 거점에 대한 공동 투자도 협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상호 활용하고, 사업성이 확인된 해외 전략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협력 모델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최고경영층이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사업 추진방안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양사 최고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체

리차가 국내 공장 위탁생산을 비롯해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국 지리자동차는 2022년 르노코리아의 지분 34%를 인수한 뒤 전기차 계열사인 폴스타의 폴스타4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병행하고 있다.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품질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박재선 KGM 회장은 "KGM 70년 기술노하우와 체리차 친환경차 파워트레인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GM과 협력 확대에 따라 체리차의 국내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리차 관계자는 "체리차는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 (전기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동남아 상업용 세탁시장 넓힌다

태국 매출 2배·필리핀 1.5배
베트남엔 체험형 매장 운영

LG전자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상업용 세탁기전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확보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공급망을 넓히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최근 태국 2위 빨래방 프랜차이즈 기업 '트렌디 위시'가 운영하는 630개 매장에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공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여는 400여 개 매장에도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트렌디 위시는 제품의 내구성과 에너지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비 런드리'에서 고객이 LG전자 상업용 세탁기를 이용하는 모습. /LG전자

효율은 물론, 여러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을 높이 평가해 LG전자의 상업용 세탁 솔루션을 선택했다.

LG전자는 태국뿐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ELS', '빅 위시', '익스프레스 클린' 등 주요 상업용 세탁기전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빠른 도시화로 상업용 세탁기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시장이다. 1인가구와 임대주택 거주자가 많고 관광객과 장기 체류 인구가 밀집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빨래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업용(상업용) 세탁장비 시장은 지난해 약 13억달러 규모에서 올해 13억9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생 기준 강화와 호텔·숙박시설, 셀프 빨래방 수요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축적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지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파트너사 'WW베트남'과 함께 스마트 세탁 매장 '비 런드리'를 열었다.

비 런드리는 일반 고객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탁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파트너와 투자자가 LG전자의 제품과 매장 관리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레퍼런스 매장으로 활용된다.

주요 고객사와 유통 채널이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G전자의 지난해 동남아시아 상업용 세탁기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태국 매출이 2배 이상, 필리핀 매출이 1.5배 이상 늘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김동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참여

신주 2만3153주 추가 취득
태양광 투자·재무개선 동참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2만3153주를 취득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솔루션은 김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31일 구주주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2만3153주를 주당 2만2100원에 취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취득으로 김 수석부회장의 보유 주식은 8만1400주에서 10만4553주로 증가했다. 유상증자로 전체 발행주식 수가 1억7446만7885주에서 2억2746만7885주로 늘어나면서 지분율은 0.05%를 유지했다.

최대주주(한화) 역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유 주식이 8035만7854주로 증가했다. 다만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효과로 지분율은 종전 36.15%에서 35.61%로 하락했다. 한화솔루션 주요 경영진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남정은 케미칼 부문 대

표는 5651주를 추가로 취득해 보유 주식 이 2만8577주로 늘었다.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7743주를 취득해 총 3만4892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은 각각 0.01%와 0.02%다.

김 수석부회장과 주요 사업부문 대표들이 신주 인수에 참여한 것은 한화솔루션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부담을 함께 나눴다는 점에서도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5300만주를 발행해 총 1조1713억원을 조달했다. 조달 자금 가운데 9000억원은 미국 태양광 통합 생산기지인 '솔라 허브'의 생산시설 확충과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에 투입한다. 나머지 2600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해 재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미국 태양광 통합 생산기지인 솔라 허브는 잉곳과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수직계열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묵직한 차체에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YG의 카톡 car talk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700km 장거리에도 편안함 유지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 충격 흡수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은 대형 SUV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도심에서는 긴 차체와 넓은 차폭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고속도로에 오르는 순간 이 차의 진가는 드러난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성격이 명확하다.

평소 차탈가 있어 장거리 여행시 늘 예민했던 초등학생 자녀의 부담을 없앴다. 지프 차량은 다소 거칠고 투박하다는 편견을 깨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쿼드라-리프트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드러운 주행감은 조용함과 편안함을 전달했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라남도 광주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700km를 주행하며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차량의 장단점을 알아봤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주행 질감이다. 대형 SUV 특유의 묵직함을 유지하면서도 불규칙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승차감은 이 차의 최대 장점이다. 요철을 지날 때 차체가 불필요하게 흔들리거나 튀는 움직임이 적고, 충격을 한번 걸러낸 뒤 안정적으로 자세를 회복한다. 쿼드라-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차체를 자연스럽게 제어하며 장거리 주행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술보증기금

R&D 사업화 800억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R&D사업화유통화보증'을 신설하고 올해 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3월 기보에 따르면 이번 보증상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정부R&D 성과와 공공연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기업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기술혁신기업들이 우수한 R&D 성과를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R&D사업화유통화보증은 정부R&D 완료료제와 공공연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이전 기술료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기보는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과 기초자산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